

“도움 손길 필요한 이웃들에 나눔 실천 지속하겠다”

광양제철소, 독거노인 지원금 4000만원 전달
금호·태인동 등 50명 대상...문화체험 활동 지원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최근 중마노인복지회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독거노인 마음이음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성현 광양시장, 정구호 시의회 부의장,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을 비롯해서 김병원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정병관 중마노인복지재단, 재능봉사단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독거노인 마음이음 프로그램’은 광양제철소가 홀몸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이 매월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지정기탁금 4000만원을 전달한 것이다.

올해 지원사업비는 금호동, 태인동, 광영동 등 제철소 인근 지역 독거노인 중 보살핌이 필요한 5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안부 살피기, 문화체험 활동, 도배, 장판, 전기 등 주거환경 개선, 생필품 지원, 도시락 및 보양식 제공 등 다각적인 정서안정 및 생계형 밀착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제철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지난 2014년부터 50개의 재능봉사단을 창단,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최근 중마노인복지회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독거노인 마음이음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사진제공=포스코광양제철소



보성경찰서 회천파출소는 최근 자율방범대와 함께 보성 울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보성 회천파출소·자율방범대, 안전활동 강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전남광주통합특설시 보성해수욕장 일대의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역 자율방범대가 손을 맞잡았다.

보성경찰서 회천파출소는 최근 자율방범대와 함께 보성 울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야간 순찰에는 경찰과 자율방범대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해수욕장 주변은 물론 해안 산책로와 골목길 등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지역을 돌며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벌였다.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절도

와 주취폭력, 여성 대상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불법촬영 등 여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내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기 점검도 실시했다.

이러한 순찰 강화를 통해 주취자 안전귀가, 분실물 확인 등에 나섰고, 추가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회천파출소는 여름 휴가철 특별방범활동 기간인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자율방범대와 야간 합동순찰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보성=임태형 기자 linth66@gwangnam.co.kr

인사

전남광주통합특설시교육청

◇전남청사 △미래성장국장 겸 경남 △인재교육국장 박철원 △미래교육전략기획관 안병모 △유아초등교육과장 김보경 △중등교육과장 전성미 △진로교육과장 양회룡 △전남학생교육원장 서영욱 △여수교육장 김영신 △고흥교육장 신자경 △영암교육장 문태홍 △무안교육장 임도선 △장성교육장 김화옥 △완도교육장 윤양석 △신안교육장에 장태환

◇광주청사 △미래정책국장 겸 정우 △대외협력담당관 김치곤 △중등특수교육과장 정원미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종화 △광주교육연구실장 유정중 △광주학

생교육원장 우재학

“고향은 삶과 문학 지탱해 주는 근원”

전남광주통합특설시 함평군 해보면 인문학 동아리 ‘온담’ (회장 이재임 수필가)은 최근 해보면 공동홈센터에서 소설가 김형수 작가를 초청해 ‘당신이 우주가 되려거든 당신의 마음을 노래하라’를 주제로 한 강연을 성황리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지역 주민 40여 명이 참석해 김형수 작가의 삶과 문학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해보면 문장 출신인 김형수 작가의 고향 방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현재 문장에 살고 있는 큰형님을 비롯해 초등학교 동창들과 마을 주민들도 함께 참석해 강연의 의미를 더했다.

김형수 작가는 어린 시절을 보낸 해보면 문장장의 풍경과 사람들, 시장과 골목, 이웃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며 “문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인문학 동아리 ‘온담’은 최근 해보면 공동홈센터에서 소설가 김형수 작가를 초청해 강연을 성황리 진행했다.

이 살아온 삶과 마을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1985년 시인으로, 1996년 소설가로 각각 등단한 그는 “지금도 고향을 떠나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 문학의 가장 깊은 토대는 해보면 문장마을에 있다”며 자신의 작품 세계가 고향에서 비롯되었음을

함평군 해보면 인문학 동아리 ‘온담’ 강연 성료
김형수 작가 초청 고향이 문학에 미친 영향 등

담담하게 풀어냈다.

질의응답에서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예전과 비교하면 해보면의 인구가 크게 줄고 지역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고향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형수 작가는 “고향은 단순한 과거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문학을 끊임없이 지탱해 주는 근원이다. 지역의 기억과 이야기를 간직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가 “예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형수 작가는 “예술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이므로 삶과 예술이 다르지 않다”며, “결국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온담 관계자는 “김형수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의 삶과 문학이 결국 고향의 기억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 손님을 초청해 지역 주민들과 삶을 나누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장흥관산농협·농협재단, 따뜻한 동행 실천

관산읍지사협에 보행보조기 70대 기탁

장흥관산농협과 농협재단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1200여만원 상당의 사랑의 보행보조기 70대를 관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농촌지역 고령화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외출과 자립적인 일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행보조기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오형주 장흥관산농협 조합장은 “어르신들의 걸음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장흥관산농협과 농협재단의 뜻깊은 나눔에 감사하다”며 “보행보조기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분들에게 세심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장흥관산농협과 농협재단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1200여만원 상당의 사랑의 보행보조기 70대를 관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게시판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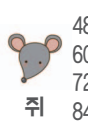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서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을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뜬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모집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정부보급,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서버임씨 별세. 최교원 (전 동신대 부총장) 씨 모친상. 임충식 (덴톤스리법률사무소 고문·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씨 장모상= 10일 오전 7시,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2층 장공실, 발인 12일 오전 8시, 장지 국립임실호국원. 062-250-4455.

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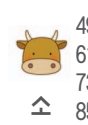
ონსე (음력 6월 29일)



48년생 돌발적인 변수까지 예견해야 한다
60년생 이익을 놓고 싸우지만 결국 패할 것
72년생 여가져서 사고가 발생한다
84년생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96년생 매사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51년생 조급해 할 필요는 없었다
63년생 험한 일을 가까스로 면하게 될 것이다
75년생 거래가 이뤄지고 이익이 따른다
87년생 무리가 아닌 계획이런 성공적이다
99년생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게 되리라
54년생 한 발 양보하는 미덕을 보리라
66년생 귀하의 능력과 실력이 인정될 것이다
78년생 항상 자신의 수양을 위해 힘써라
90년생 규칙적이러면 신뢰감을 준다



57년생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다
69년생 계획한 대로 쉽게 풀려나간다
81년생 힘들고 어려운 일무를 맡게 될 것이다
93년생 기만이 있지 말고 움직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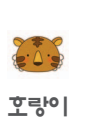
49년생 흑과 백으로 명암을 분명히 하리라
61년생 사소한 일도 꼼꼼히 챙겨라
73년생 차근차근 풀면 반드시 성사되리라
85년생 목적에 부합하다면 일관되게 추진하라
97년생 친구를 응서하고 감싸 주라
52년생 비교적 심신 안정되고 편해질 것
64년생 징후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76년생 의욕적으로 일에 임하라 결과가 좋다
88년생 연인 만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55년생 정신을 맑게 하라
67년생 이익을 놓고 싸우지만 결국 이기게 된다
79년생 전폭적인 성원이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
91년생 이성에 미련을 갖지 마라



58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곤란한 일을 당한다
70년생 결과 속이 다르니 현혹되지 마라
82년생 도움 요청에 상대의 회답이 올 것
94년생 답답해하지 말고 등산이라도 하라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50년생 배우자로 인한 우울한 심정에 빠진다
62년생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러면 무용지물
74년생 회망하던 부동산 일이 성사 될 것이다
86년생 망설이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98년생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실망스런 날
53년생 우선 식구들을 선택하라
65년생 기득권의 횡포 앞에 휘둘릴 수 있다
77년생 유희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겠다
89년생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된다
56년생 교통사고, 특히 적색 차 조심하라
68년생 적은 문서 먼저 나가고 큰 문서가 온다
80년생 경험을 통한 체득의 가치가 크다
92년생 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 것이다



59년생 가족에게 말하지 말고 직접 처리하라
71년생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이 따로 있느니라
83년생 꿈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95년생 한 가지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